

2016년 포니정 해외학술탐방 '최초로 나르샤' 최종보고서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4학년 함은혜
서강대학교 철학과 3학년 성민교



공과 최양을 남긴 영원한 선구자 포니정
PONYCHUNG



목차

1. 서론 : 학문창조의 실현을 향하여

2. 본론
 - 1) 일정별 진행 상황
 - 2) 탐방 내용
 - 3) 탐방의 의의

3. 결론 : 창조력은 ‘자기’를 찾는 데서 나온다

4. 탐방소감

1. 서론 : 학문창조의 실현을 향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는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인문학의 위기가 공존하고 있는 모순적 상황에 빠져 있다. 인문학 열풍이 불게 된 시작점에는 바로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제조회사 애플(APPLE)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Steve Jobs)가 있다. 스티브 잡스는 “창의적인 제품을 만든 비결은 항상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있기 때문이다.”, “대학시절에 플라톤과 호메로스로 시작해 인문고전을 읽은 것과 선불교에 대한 책들을 섭렵했던 것이 오늘의 애플을 만드는 힘이다.”라고 말하며, 기업의 혁신에서 인문학적 소양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여러 번 밝혔다. 이밖에 빌 게이츠, 앨런 머스크 등 저명한 경영자들의 사례가 더해지면서, 세계적으로 인문학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새로운 변화가 절실한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안에서, 인문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심에는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라임사업”이 있다. 프라임사업은 인문·사회·예체능계열의 정원을 이공계열로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실용주의와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성과주의에 따라서 당장 자본을 창출하지 못하는 인문학을 의도적으로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시대변화와 요구에 따른 대학의 구조개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자본의 생산가치 만이 대학의 운영기준이 된다면, 장기적인 국가역량의 존속과 발전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우리는 흔히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경쟁구도에서 보기 쉽다. 하지만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경쟁’한다는 것은 한 인간의 머리와 손이 서로 ‘경쟁’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둘은 서로 기능이 다른 두 분야이며 상호 보완적이며, 학문체계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다.

최초로 나르샤 팀은 인문학에 대한 관심증가와 인문학 교육의 위기가 동시에 발생한 모순적인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을 우리나라가 현재 “학문의 수입국”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동양철학박사이며, 21세기 정경연구소 소장인 “신동준” 교수님은 “학문을 수입하는 국가에는 미래가 없다.”고 말하며, 한국이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해서, 학문의 생산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신동준 교수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했다. 즉 현재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치열하게 연구하여 만들어진 기초학문의 성과만을 주로 수입하는 국가이다. 이렇게 자신만의 독자적인 지식과 기술이 없는 나라는 생존을 위해서 늘 다른 국가에 기대야만 한다.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단지 학문의 수입국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공간적 사회조건에 적합한 학문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찾아보고자 이 탐방을 기획했다.

한국이 학문의 생산국이 되기 위한 방법론을 찾는 데 있어, 우리가 발견한 첫 실마리는 바로 “동학”이다. 동학은 예부터 우리나라를 이르는 말인 동방의 학문이라는 뜻으로서 1860년 최제우가 창시한 한국의 이름을 건 최초의 자생적 학문이다. 지배층의 부패와 외세의 침략으로 대내외적으로 혼란스러웠던 당시 조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학자였던 최제우는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면서까지 새로운 세상, 즉 개혁을 꿈꾸며 새로운 가치를 제시했다. 그 뿐아니라 동학은 평등, 인간(생명)의 존엄성 등 근대적 가치의 씨앗이 발견된다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최제우가 창조한 가치들은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사회적 운동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서구 근대 시민혁명과의 동학농민운동의 강한 유사성을 발

견할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최제우의 철학자로서의 모습은 프랑스 대혁명의 아버지인 계몽주의자 루소와 상당히 닮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창조뿐만 아니라 가치의 실현과 지속의 중요성에 바탕을 두고, 한국의 철학자이자 가치창조자인 최제우는 학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반면, 서구 시민혁명의 가치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재창조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데에서, 학문 생산과 지속 가능성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서구 시민혁명의 학문적 기초를 닮은 계몽주의자, 그 중에서도 계몽주의의 완성자이자 시민혁명의 아버지인 루소와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를 비교철학적으로 분석하여, 가치의 창조·실현·지속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을 탐방의 내용과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탐방 목표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해외에서 탐방해야 할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첫째로 루소 철학의 가치창조의 시점, 둘째로 가치 재창조의 시점, 마지막으로 가치의 사회적 가치실현과 영향력이다.

이러한 탐방에 앞서 탐방의 동기, 목표와 방법론에 대해, 동양철학·서양철학·정치학에 전문가인 국내외 교수님들께 인터뷰를 통해서, 그 가치와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학자 3분은 서강대학교의 최진석 교수님, 이화여자대학교의 이지영 교수님, 마지막으로 미국의 랍포드 대학 철학과의 스테판 히스(Stephen Hicks) 교수님이다. 먼저 최진석 교수님은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남이 잘한 일에 박수만 치고, 또 분석만 하며 세월을 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의 깊이와 폭이 국격을 결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만든 철학과 지식을 따라하거나 습득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중진국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있는 나라가 선진국에 오를 수 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한국철학에 대한 연구이다. 자신의 뿌리를 모르고서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 젊은 철학도들의 통찰력 있는 문제의식과 나름의 해결 방법이 매우 놀랍고 멋지다."라고 평해주셨다. 다음으로 이지영 교수님은 "학문은 융합하면서 발전하지만, 한국에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학문이 부재함을 포착한 날카로운 문제의식이 돋보인다."라고 탐방주체의 가치를 평가해 주셨으며, 마지막으로 스테판 히스 교수님은 "Your project does sound fascinating - a new, cross-cultural investigation. It could attract academic interest."라고, 동·서양 철학자의 비교철학적 분석이라는 탐방방법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보여주셨다.

6주 동안의 탐방은 앞서 언급한 탐방의 방향성(가치창조의 시점 · 가치재창조의 시점 · 사회적 가치실현과 영향력)에 따라, 세 나라(스위스 · 프랑스 · 미국)를 탐방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스위스는 루소의 모국이기 그의 가치 창조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 알 수 있는 중요한 곳이다. 또 루소의 『에밀』이 종교계의 탄압을 받았을 때, 망명 생활을 한 나라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프랑스는 그가 젊은 시절 자기 철학을 발전시키며, 막대한 저술과 강연을 했던 곳이다. 이곳에서는 젊은 연구자와 기존 연구자 사이의 연계강화를 통해서 루소의 철학을 재창조해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독립선언서에서 루소의 철학을 포착할 수 있는 국가이다. 미국에서는 현대철학자와 루소의 연결을 통해서 루소를 재발견하고 있다. 이 세 나라 모두에서 현재까지 루소철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그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사회실천적인 노력들이 진행 중이다. 본론에서는 탐방 진행 상황을 표로 정리하고, 탐방의 구체적 내용과 의의, 그리고 탐방의 결과와 소감을 다룰 것이다.

2. 본론

1) 일정별 진행 상황

	탐방 국가	진행 상황		
		계획	실행	미실행
1주차	스위스	6월 28일 루소 탄생기념 세미나, 제네바 대학 도서관, 제네바 루소 기념관, 로잔 대학교	6월 28일 루소 탄생기념 세미나, 제네바 대학 도서관, 제네바 루소 기념관	로잔 대학교
2주차	스위스	루소와 문학의 집, 전문가 인터뷰, 시민 인터뷰	루소와 문학의 집, 전문가 인터뷰, 시민 인터뷰	
3주차	스위스	뇌샤텔 공립 및 대학 도서관, 뇌샤텔 루소 기념관, 모티에 장-자크 루소 박물관, 제네바 루소 섬	뇌샤텔 공립 및 대학 도서관, 뇌샤텔 루소 기념관, 모티에 장-자크 루소 박물관, 제네바 루소 섬	
4주차	프랑스	액상 마르세유 대학교, 소르본 대학교, 시앙스포, 시민&학생 인터뷰	액상 마르세유 대학교, 소르본 대학교, 시민&학생 인터뷰	시앙스포
5주차	미국	미국 루소 학회, 브라운 대학교, 락포드 대학교, 전문가 인터뷰, 학생 인터뷰	락포드 대학교, 전문가 인터뷰, 학생 인터뷰	미국 루소 학회, 브라운 대학교

6주차	미국	뉴욕 대학교, 존듀이 학회, 컬럼비아 대학교, 미국 정치철학회, 시민&학생 인터뷰	뉴욕 대학교, 컬럼비아 대학교, 미국 정치철학회, 시민&학생 인터뷰	존듀이 학회
-----	----	---	--	--------

* 프랑스에서 열린 유로 2016으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3주차에 프랑스로 가려 했던 계획을 4주차로 변경함.

2) 탐방내용과 의의

■ 첫 번째 탐방국가 “스위스”

“최초로 나르샤” 팀의 첫 번째 탐방국은 스위스이다. 스위스는 광활한 정경을 가진 평화로운 나라이며, 그 거대한 자연 안에서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는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국가이다. 전 세계에 지금까지 일어난 전쟁 중에서, 단 한 번도 참전한 적이 없는 중립국이며, 가톨릭의 중심지인 베드로 대성당이 있는 바티칸에서 교황청을 수호하는 나라이다. 현재에는 유럽지역 UN의 본부가 위치해 있는 자유와 평화의 상징하는 나라이다. 루소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이 존재하는 스위스에서 태어났다. 그와 동시에 스위스는 루소의 “에밀”이, ‘신성모독’이라는 오해를 받아 망명생활을 할 때 생활했던 나라이다. 즉 루소의 고향이자 루소의 집인 스위스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루소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그 방법론은 루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술회와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교간의 연계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존의 연구자와 현재 학부수준의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생간의 연계는 루소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루소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루소의 최초기록물들이 가장 많이 보존·보관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스위스이다.

■ 철학의 창조와 재창조

철학의 창조부분에서는 주로 루소의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는 곳을 탐방했다. 대표적인 곳은 제네바 대학도서관과 뇌샤텔 대학도서관이다. 이 두 장소는 루소를 연구하는 최대 학술회인 두 곳(스위스 루소 협회와 뇌샤텔 루소 협회)의 본부가 있는 곳이다. 스위스 루소 학회의 현 회장인 Martin Ruffe교수는 현재 제네바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뇌샤텔 루소 학회를 운영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제네바 대학교, 로잔 대학교, 뇌샤텔 대학교 각각의 대학에서 철학을 교육하고 있는 중이다. 즉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루소의 기록물이 보존되고 있음과 동시에, 이곳에서 다음 세대에 루소를 연구하는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제네바 대학교, 뇌샤텔 대학교, 루

소와 문학의 집, 마지막으로 모티에 장-자크 루소 박물관에 있는 교육 및 연구기관과 루소 컬렉션을 탐방했다.

(1)제네바 대학교 도서관과 루소 기념관

제네바 대학교 도서관은 제네바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자 장 자크 루소 컬렉션을 관리하는 중앙 기관이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루소 컬렉션은 루소의 삶과 작품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꼭 필요한 증거자료들으로써, 250여 년 동안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래 3년 전까지는 루소만을 위한 박물관이 보다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보다 폭넓은 주제를 주관하는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록유산은 사회계약론 초고 서명판, 신 엘로이즈 초고, 고백록이다. 이 밖에도 학자들과 주고 받은 서신들과 루소의 데드마스크를 볼 수 있다.



(2)뇌샤텔 대학교 도서관과 루소 기념관



뇌샤텔에는 루소에 대한 학술연구회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뇌샤텔 루소 협회가 있다. 또한 이곳은 『에밀』이 소르본에서 금서가 된 이후, 루소가 박해를 피해 망명을 떠난 지역이기도 하다. 루소철학의 이때의 시기를 ‘뇌샤텔 시대’라고 부른다. 뇌샤텔에서는 루소 전문 학술회인 뇌샤텔 루소협회와 고등 교육기관인 뇌샤텔 대학의 연계로 루소의 학문이 재창조되고 있다. 또한 뇌샤텔 도서관은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된 루소 컬렉션 중 하나로써, 루소의 가장 중요한 저작들을 보존하고 있다.

뇌샤텔 대학도서관에는 스위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루소의 컬렉션 중에서 가장 방대한 양의 루소의 자필편지가 보존되어 있다. 그 이유는 뇌샤텔 루소협회의 노력 때문이다. 뇌샤텔 루소협회는 루소의 철학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루소가 직접 쓴 기록물의 보존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루소 컬렉션을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였다. 그 공헌으로 이곳 뇌샤텔 도서관에는 무려 800통이 넘는 루소의 자필 편지가 보관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루소의 중요한 저작들의 초고 역시 보관되어 있었다. 초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아우구스티누스, 톨스토이의 고백록과 함께 세계 3대 고백문학으로 평가받는 작품인 루소의 『고백록』의 최초의 초고이다.

자료실에는 『고백록』의 초고와 다른 초고들도 자리하고 있다. 루소의 후기 저작 중 현대에 가장 큰 연구 가치를 지닌 『고독한 산책가의 몽상』과 루소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주는 『음악사전』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이러한 루소의 작품과 함께, 루소 기념관에서는 루소가 뇌샬에 살았던 시대인 1794년경의 스위스와 연관된 역사적, 문화적인 전시물, 또한 그의 사적인 생활 모습도 전시하고 있다. 그와 편지를 나누는 사람들, 그의 식물학과 음악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의 아내 테레즈에 관한 언급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과 루소가 실제 생활했던 모습까지 접할 수 있는 루소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탁월한 공간이었다.

(3)루소와 문학의 집



루소와 문학의 집은 2012년 설립되었다. 이곳은 본래 루소가 직접 거주하고 생활했던 공간이다. 오랜 시간동안 루소가 태어난 곳이 시계공인 아버지가 태어난 집으로 잘못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야 이곳이 진짜 루소가 태어난 곳으로 인정되었다. 이곳은 대학교와 같은 시에서 설립한 공기관이 아니라, 루소를 연구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사기관이다. 대학교가 루소와 전문가 그리고 학생을 이어주는 공간이라면, 이곳은 루소를 연구하는 학자와 학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

반 시민들에게까지 루소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크게 2가지 역할로 나뉘어 운영 중인데, 먼저 루소의 전체 생애와 더불어, 발전한 그의 철학을 보여주는 전시공간과 루소와 문학의 집에서 주최하는 세미나가 있다. 세미나에는 제네바 시민과 루소에 관심이 있기에 그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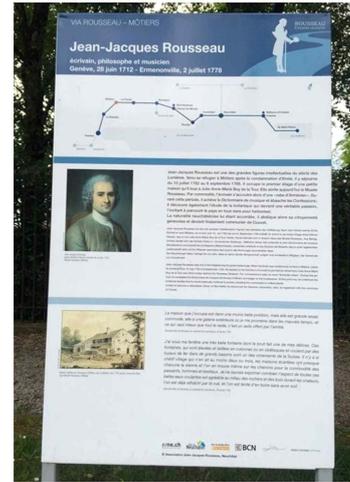
먼저 전시공간은 1층 문학의 집에서 루소가 실제 사용했던 계단을 이용해, 2층에 올라가, 루소의 삶의 흔적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루소 기념관을 체험할 수 있다. 기념관은 6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 루소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 그의 철학의 시작과 발전 그리고 망명기간의 철학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루소철학의 영향을 받은 울스톤 크래프트, 톨스토이 등 철학자에서 문학가를 아우르는 학자들과 루소의 철학이 시대에 시사한 바를 확인할 수 있다. 루소와 문학의 집은 루소의 숨결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훌륭하게 보존된 생가일 뿐만 아니라, 루소 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간의 연결고리이자 철학 이외에 다른 분야의 학자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며 루소의 철학을 재생산해내고 있는 학문의 장이다.

(4)모티에 장-자크 루소 박물관

모티에는 표지판이 거의 없을 정도로 조용한 스위스 뇌샬 주의 작은 지역이다. 그러나 모티에에 도착하자마자 루소와 관련된 공간을 알려주는 큰 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로 표지판조차 찾기 힘든 이곳에 루소에 대한 표지판이 있는 것은 이 마을에서 루소가 살았다는 것이 모티에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1762년 루소의 『에밀』은 소르본에서 금서로 낙인찍혔다. 종교계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으로도 루소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루소를 체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루소는 고향인 스위스에 돌아왔으나, 제네바와 베른을 비롯한 스위스 지방에서도 『에밀』의 부정함을 주장하면서, 루소를 받아들이지기를 거부했다. 결국 루소는 당시 프로이센의 영토였던 모티에라는 작은 산골지방에서 3년 동안 체류생활을 하게 된다. 루소는 이곳에서 『산에서 쓴 편지』 등을 저술했다.

모티에의 길 전체의 이름이 'Rue J-Jacques Rousseau(장-자크 루소 길)'이다. 주민들은 장-자크 루소 산책로를 만들어 가꾸고 있다. 장-자크 루소 길에 위치하는 “모티에 장-자크 루소 박물관”은 루소가 당시 살던 집을 박물관으로 보존해 놓은 곳이다. 모티에의 시민들은 루소가 가져온 시민혁명의 뿌리인 인권의식을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면서, 그가 실제 거주한 공간을 잘 보존해오고 있다. 1층에는 꽃으로 꾸며진 마당과 사무실이 위치하고, 2층에는 루소가 사용했던 침실과 거실을 비롯한 저술에 몰두한 장소들이 있다. 자기철학에 대해 오인 받고 박해받는 상황에서, 조용한 공간 속에서 오직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며, 자기 철학의 지속적인 반성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갔던 루소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 철학의 사회적 영향

(1)루소 탄생기념 세미나

스위스 루소 협회 산하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세미나에 참여하였다. 6월 28일 열린 이번 세미나는 Palais Ednard 호텔에서 개최되는 루소 탄생 기념일 파티 겸 세미나였다. 세미나는 저명한 비평가 Jean Stravinsky의 출간 도서를 바탕으로 저자의 설명회로 1부가 진행되었다. 다음 2부에서는 문학, 철학, 사학 등 인문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자들로 구성된 세션에서 토론이 이어졌다. 이곳에서 철학 이외에 다른 분야의 학자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며 루소의 철학을 재생산해내고 있는 학문의 장을 볼 수 있었다.

(2)전문가 인터뷰 : 루소와 문학의 집 담당자 “Otto”

◆ 인터뷰 대상자 소개

루소와 문학의 집에서 만난 Otto씨는 전직 건축가이다. 그는 건축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유지하다 몇 년 전 은퇴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가던 중,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읽으며, 루소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이 후, 루소와 문학의 집이라는 공간을 알고 있던 Otto씨

는 현재 문학의 집에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그가 재능기부를 하는 이유는 “루소의 철학을 더 잘 공부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더불어 전직 건축가로서 그는 루소의 생가 건물의 구조와 형태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 인터뷰 질의응답

Q1. 안녕하세요. Otto씨.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시게 되었는데 궁금합니다.

A1. 저는 건축학을 전공하고 실제 건축계에서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 현장에서 은퇴를 하였는데, 마침 루소의 생가 건물이 새로 밝혀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건물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 루소와 문학의 집에서 새로 일할 사람을 뽑는다는 것을 알았고, 저에게 건축 전문가로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지금은 루소의 철학에 대해 공부하는 게 더욱 즐겁습니다.



Q2. 그렇다면 그전에는 루소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스위스인에게 루소는 어떤 존재인가요?

A2. 지금 우리 스위스 사람들은 루소를 시민으로 가졌다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소는 제네바에 살 때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반한다는 이유로 많은 사상적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네바 사람들은 루소에 대해 완벽히 알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는 그의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의 철학은 우리의 정치체제와 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대 스위스 사상의 뿌리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Q3. 그렇다면 현재 루소와 문학의 집 안에서 루소 철학의 재생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A3. 이곳에서는 다양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철학뿐 아니라 문학, 역사, 건축, 예술 등 모든 학자들이 루소라는 이름 아래에 모이는 장소입니다. 루소는 철학, 교육, 정치 등 어떤 한 분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문을 포괄하는 하나의 사상적 교차로 같은 인물입니다. 그의 상징성은 모든 것을 아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 따라 학자들 간 자유로운 연계를 추구하고, 일반 시민에게도 언제나 열려 있는 공공의 공간이 되려 합니다. 학계와 일반 대중 간 문화적 중재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3)루소 섬

스위스의 랜드 마크인 레만 호의 몽블랑 다리와 베르그 다리 사이에 루소 섬이 연결되어

있다. 루소 섬에 들어오게 되면, 제또 분수가 그대로 보이며, 많은 제네바의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루소 섬 중앙에는 조각가 제임스 프라디에가 제작한 루소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루소를 중심으로 섬의 곳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휴식을 취하는 제네바 시민들을 통해서, 루소는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시민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안식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스위스 탐방의 의의

스위스에서 탐방은 대표적인 루소 연고지인 제네바, 뇌샤텔, 모티에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 세 곳의 공통적인 특징은 루소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처음에 탐방을 계획할 때에는 이러한 장소들에 대해서, ‘루소의 기록물들이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입지에서, 현재에 초점을 맞춰, “연구현황”을 탐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 탐방을 진행하고 나니, 박물관과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소에서 뜻밖에 루소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한 철학자의 삶에는 그가 살았던 나라가 가지고 있던 사회분위기와 생활 형태와 같은 요소들이, 그가 철학을 창조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직접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스위스에서의 탐방이 가치를 갖는 이유는 루소에 대한 재창조가 이뤄지는 연구기관과 루소에 대한 교육을 하는 학교, 그리고 루소의 저작들이 보관되고 있는 기록물 보관소가 “대학교 도서관”으로 수렴된다는 점이다. 대학이 단지 학생들은 가르치는 공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철학자를 공부하는 데 있어, 이론적인 부분과 체험적인 부분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대학과 전문학회와 박물관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기에, 루소의 철학이 창조되었던 과거와 루소의 철학이 재창조되고 있는 현재를 모두 탐방할 수 있었다.



스위스는 루소가 살았던 공간을 직접 시민과 루소를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 곳은 “루소와 문학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루소를 접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단지 기록물 보관소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과 전문지식의 교차로가 루소의 생가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루소가 단지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느끼게 했다. 루소는 그가 남긴 철학 뿐 아니라, 현 세대의 시민들의 관심과 연구에서,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 두 번째 탐방국가 “프랑스”

“최초로 나르샤”의 두 번째 탐방국가는 프랑스다. 루소는 프랑스 시민혁명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프랑스 시민사회에 미친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 스위스에서 태어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던 그가 철학을 시작하고 학계에 입문하면서부터 그의 철학이 무르익을 때까지 모든 활동이 프랑스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루소 연구에 있어 프랑스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특히 루소의 정치철학적 면모가 집중적으로 발전한 곳으로서 성숙한 정치 체계와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에서 루소의 철학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볼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 철학의 창조와 재창조

(1) 액상 마르세유 대학교



액상 마르세유 대학은 프랑스의 지방인 액상 프로방스와 마르세유에 위치한 세 곳의 캠퍼스를 2012년부터 하나로 통합한 대학이다. 이 대학은 프랑스에 있는 대학 중에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대학인데, 사실 그것은 2012년 캠퍼스 통합 이후를 설명하는 것이고, 3개의 캠퍼스로 나뉘어 운영돼오던 대학은 이미 중세시대부터 있던,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이다. 또한 액상 마르세유 대학은 프랑스에 있는 대학 중 가장 다

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곳이며, 파리 7대학인 디드로 대학과 같이 한국어학과가 있는 대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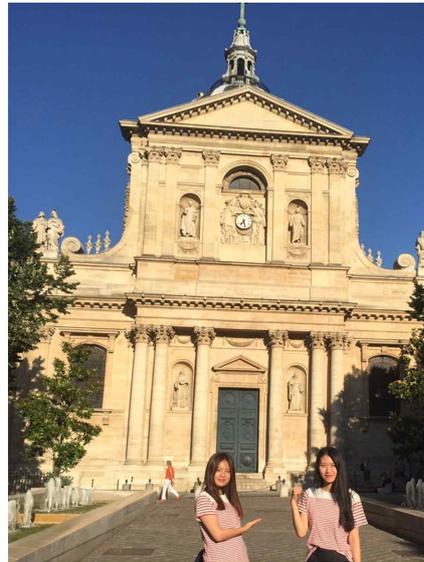
액상 마르세유 대학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학과 간 연계로 이뤄지는 학문융합이다. 최근에는 프랑스 18세기 정치철학회에서 주관하는 연례세미나도 열렸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긴 종교 개혁에 대한 비판”이다. 원래 이번 세미나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유로 2016 및 테러위험으로 프랑스의 상황이 좋지 않아 프랑스에서 진행될 일정이 조정되어, 아쉽게도 세미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러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액상 마르세유 대학에 있는 철학 연구소에 방문하여, 어떠한 방법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지 탐방했다.

액상 마르세유 대학에는 130개의 연구 분야가 조성되어 있다. 이중 인문학계열에 속하는 "액상 마르세유 철학 연구소"는 1969년 Louis Guillermit 교수의 "리더쉽에 대한 연구와 학생과 교수 모두를 위한 연구환경 조성"이라는 목표에 따라서 설립됐다. 액상 마르세유 철학 연구소의 연구 분야의 두 기둥은 바로 고대 철학과 근현대 철학이다. 우리는 루소가 활동하였던 시기인 근현대 시기의 철학에 집중해,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 탐방했다.

근현대 시기의 세부연구분야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먼저 다른 국가 및 국제 연구 기관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각각의 국가에서 태어나고 활동하였던, 철학자의 삶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로 각 국가의 언어학적인 요소를 검토하는 일을 우선으로 정치적, 종교적 배경을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현대의 시대적 & 공간적 배경 아래에서, 이전 철학에 대한 연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앞서 설명했던 방법이 철학이 창조되었던 과거를 중심으로 연구한다면, 두 번째 방법론은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현재에 중요시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전 철학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텍스트를 재창조하는 것이다. 고전과 근현대를 모두 아우르는 지식과 인식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뛰어난 학자와 박사학위가 연구를 수행한다고 한다.

(2)소르본 대학교

파리 1대학인 소르본 대학은 본래는 파리 대학교로 액상 마르세유 대학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였다. 1200년에는 프랑스왕 필립 2세에게, 1215년에는 교황 인노첸시오 3세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신학과 철학에서 엄청난 명성을 얻었던 대학이다. 이곳은 프랑스 혁명기인 1793년에 폐쇄되었다가, 1896년에 다시 설립되었다. 그러나 5월 혁명의 영향으로 1971년에 여러 개의 독립적인 대학교들로 분할되었다. 파리 13개의 대학 중에서 소르본은 팡테옹과 같이 파리 1대학으로 철학, 법학, 사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파리에서 소르본 대학 견학은 프랑스 탐방에 도움을 주실 윤일 선생님과 함께했다. 윤일 선생님은 파리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서 외교학 전공으로 대학원을 졸업하셨다. 피아니스트로 또 통역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윤일 선생님은 이번 여름에 고국인 프랑스에서 가족을 보러 온 와중 우리의 부탁으로 프랑스 탐방에 도움을 주시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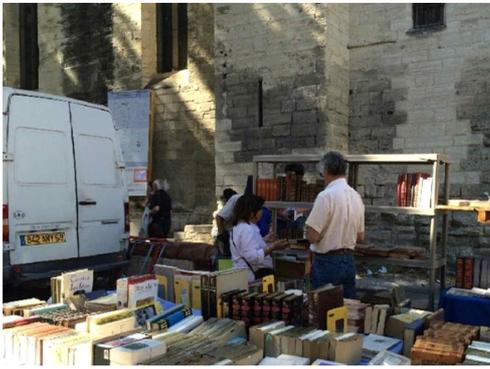
소르본 대학에는 루소 전문학회가 있다. 우리는 이곳을 방문해 현재 소르본 대학에서는 어떻게 루소를 연구하고 있는지 연구현황을 탐방하기로 했다. 소르본 루소 협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젊은 연구자의 연구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연구를 시작하는 대학원생이나 젊은 연구자들이, 기존에 연구를 이어온 전문가들과 긴밀한 연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후원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에서 이뤄지는 연구에 간히는 것이 아니라, 국외연구자들과의 모임을 통해 다양한 방법론과 학문의 융합으로 연구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또한 자유 토론 세미나를 개최해서 철학과 학생 뿐 아니라, 철학 연구에 관심이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철학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철학의 사회적 영향

(1) 시민 인터뷰

◆ 인터뷰 대상자 소개



파리의 골목을 여행하다, 한 광장에서 중고책 베퉼시장을 열고 있는 것을 보고 구경하던 중 한 서점에서 루소의 전집을 팔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서점 주인인 Olivier씨와 루소의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작은 베퉼시장에서 한 즉석 인터뷰였는데도 루소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생생한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인터뷰 질의응답

Q1. 저희는 루소에 대해서 탐방을 하러, 한국에서 온 철학과 학생입니다. Olivier씨는 루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A1. 프랑스인이라면 누구든지 루소를 알고 있고, 또 그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인 대혁명은 루소의 사회계약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1789년 7월 14일 혁명이 후로 프랑스에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Q2. 그렇다면 루소의 철학에서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나요?

A2. 바로 평등입니다. 모두가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에 시민의 정치참여는 자유의 기본 조건입니다. 또한 그 자유가 적용되는 것에 있어서, 루소가 정의로움의 기준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빛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계몽주의이지요. 루소는 왕정 이후에 민주주의라는 정치체계를 내다본 점에서 사회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철학자입니다.

Q3. 현재의 프랑스인들은 루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A3. 앞서 말했듯 루소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현재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계몽주의를 가져온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루소의 철학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듯 합니다. 저도 막상 루소에 대해 말하려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을 말할 수는 없어도, 프랑스인의 정신에 항상 루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프랑스 탐방의 의의

스위스가 루소의 모국이라면, 프랑스는 루소가 시민혁명의 아버지인 곳이다. 길을 지나가는 어떤 프랑스인도 루소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단순히 위인으로서 루소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시대에 활동하였고 유럽의 정치체제와 사고방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아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 프랑스 시민이 모든 프랑스인들은 루소의 이름을 알 테지만, 그의 책이나 사상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를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 크게 와닿았다. 특히나 인물 위주로, 중요 사건의 나열 위주로 교육하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인물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100명의 위인을 나열한 노래도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느낀 것은, 그들은 비록 루소의 이름만 알지라도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루소라는 것, 현재 서구인들의 사고방식을 만들어준 사람이라는 것을 비교적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사고방식을 만들어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결국에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외부로부터 수입해오는 문제점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우리의 사고의 틀을 만들어준 사람은 누구일까, 그게 최제우가 될 수 있을까, 최제우는 왜 그렇게 되지 못하였을까 라는 질문이 가슴에 가장 크게 박혀있다.

파리에서는 통역뿐 아니라 현지를 안내해주실 윤일 선생님 덕분에 현지인과 함께 보다 깊은 곳까지 구석구석 느끼고 올 수 있었다. 윤일 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나눈 것도 큰 경험이 되었는데, 프랑스 젊은이로서의 루소에 대한 생각을 듣는 것이 인상 깊었다.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운 나라이다. 시민혁명 이후 평등이라는 가치는 프랑스인들에게 각인되다시피 박혀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점차 다원화되는 사회,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민자와 다문화라는 이슈는 프랑스인들의 생각을 점차 흔들고 있는 듯 보였다. 프랑스 정신의 상징인 자유, 박애, 평등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 내가 사랑해야 하고 평등하게 대해야 하며 자유를 가진 이웃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대립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사회적 안전망이 흔들리면서 그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었다. 프랑스뿐 아니라 온 세계의 문제인 만큼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모든 세계인들이 깊게 생각하고 대화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세 번째 탐방국가 “미국”

세 번째 탐방국가는 미국이다. 탐방을 준비하며 루소의 모국인 스위스와 주요 활동무대인 프랑스만 탐방하는 것보다, 현재 서구 사회에서 주류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루소의 영향력을 확인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우리의 목표가 학문의 수입국이 아닌 학문의 생산국으로서의 지위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 학문의 중심지로서 창조를 거듭해나가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꼭 보고 싶었다. 시대적으로도 당시 신생 독립국이었던 미국의 독립에 루소의 사상이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 분명하기에 미국에서 직접 루소 철학의 재생산과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껴졌다. 일반적으로 미국 독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학자는 로크라는 것이 정설인데, 루소는 그 과정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하였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루소 학문의 재창조뿐 아니라 미국 독립선언문에 루소가 끼친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큰 부분이었다.

뿐만 아니라 철학도로서 우리의 루소 연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루소를 향한 모순적 단어의 공존, 즉 근대를 옹호함과 동시에 포스트모더니즘을 열었다는 것, 계몽주의자임과 동시에 반-계몽주의자라고 불리는 것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tephen Hicks 교수님과 인터뷰는 매우 중요했다.

■ 철학의 창조와 재창조

(1) 컬럼비아대학교



먼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모교인 뉴욕에 있는 명문 사립대학, 컬럼비아 대학에 다녀왔다. 완벽한 직사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는 컬럼비아 대학 모닝사이드 하이츠 캠퍼스는 낮은 건물들과 푸릇한 잔디가 어우러져 상당히 부드럽고 편안한 인상을 주었다.

이탈리안 르네상스 스타일로 지어진 버틀러 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을 둘러 고대부터 근대까지 사상가들과 작가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이다.

정면에 호메로스, 헤로도토스, 소포클레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모스테네스, 키케로, 베르길리우스, 서쪽에 호라티우스, 타키투스,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단테, 동쪽에 셰르반테스, 셰익스피어, 밀톤, 볼테르, 괴테가 연대순으로 적혀 있다. 건물 표면 외에 캠퍼스를 향하고 있는 창문들에도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나다니엘 호손, 에드거 앨런 포 같은 정치가와 작가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컬럼비아 대학 도서관들의 총 1천 2백만 권의 책 중에서 역사와 인문학 관련 2백만 권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답게 이름이 새겨진

위인들이 정말 잘 어울렸다. 그런데 때로는 이 이름들이 학생들의 저항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름이 적힌 대부분이 백인 남성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학생 운동가들은 버틀러 도서관 지붕에 올라가 흑인이나 여성 작가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펼치며 평등의 의미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철학과 건물의 외부에는 생각하는 사람 동상이 자리 잡고 있다. 철학과 건물 앞 생각하는 사람이라니, 그 상징성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졌다.



철학과 건물 안에서는 곧 개강할 가을 학기 철학과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해 했던 컬럼비아 대학의 자랑, 핵심교육과정(코어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철학과 사무실에서 학사 관리와 재무를 담당하고 계신 관리자 Stacey Quartaro 씨를 만나 컬럼비아 대학 철학과의 교육과정과 제도에 대해 많은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핵심교육과정은 컬럼비아대학에 입학한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으로서, 학생들은 지도교수와의 상의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핵심과정을 선택하여 가장 핵심적인 교양을 쌓아 간다. 그중에서도 핵심교육과정의 인문학 분야에서는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인간불평등기원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한다. Quartaro 씨는 학생들의 연락처를 직접 구해서 알려줄 정도로 우리의 탐방을 많이 도와 주셨다.

◆ 인터뷰 대상자 소개



컬럼비아 대학 철학과의 학사 관리와 재무를 담당하고 계신 관리자 Stacey Quartaro 씨를 만나 컬럼비아 대학 철학과의 교육과정과 제도에 대해 많은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존 듀이 학회 소속 교수님을 뵈러 왔지만 약속이 취소되어 상심하고 있던 우리는 초상화를 본 것만으로도 매우 감격하였다. Quartaro 씨에게 철학과 사무실 바로 앞에 크게 존 듀이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 이유를 묻고 싶었다. 루소 철학의 후계자 존 듀이를 찾으러 갔으나 찾지 못

하여 좌절하고 있던 우리에게, 듀이는 스스로 그 존재감을 뽐내며 자신을 드러내었다.

◆ 인터뷰 질의응답

Q1. 존 듀이의 초상화가 이 자리에 걸려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어 봐도 될까요?

A1. 존 듀이는 우리 학교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교수 중 한 명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교육철학자가 우리 교육기관에 있었다는 사실은 아주 큰 영광이지요.

Q2. 존 듀이는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관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루소의 영향을 받은 듀이, 그의 미국에서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A2. 현재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과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듀이는 하나의 기준점이 됩니다. 비판적이고 반성적 지성을 사용하는 데 탁월했던 그는 여전히 살아 숨 쉬며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지요. 듀이는 루소의 주장을 발전시켜 직접 교육적 실천으로 이뤄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소의 사상이 없었다면 듀이가 어떠한 활동을 했을지, 현재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2)뉴욕대학교



뉴욕대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립대학이다. 시청 근처에 있는 건물에서 교실을 임대해 수업을 시작했던 뉴욕 대학교는, 말 그대로 뉴욕 그 자체였습니다. 뉴욕 맨해튼 남부 시내를 따라 이어진 수많은 학과, 연구소, 도서관 등의 건물들은 어떠한 담장도, 커다란 표시도 없이 대로변에 큰 창문을 열어놓은 채 소리 없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었다.

뉴욕 대학의 철학과는 2015년 세계 철학과 랭킹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철학에 대한 교육과 연구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철학과 사무실에서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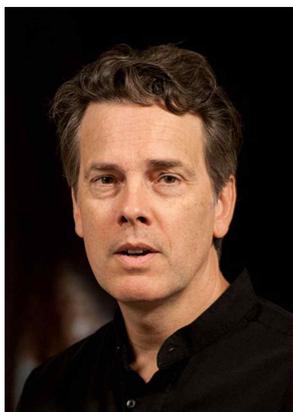
뉴욕 대학은 미국 대학 중에서 가장 학과 다양성이 높은 학교라고 한다. 철학과 교수진 내에서도 그 전공 분야가 매우 다양했다. 한 분야만을 전공한 교수는 없었다. 형이상학, 인식론 등 기본적인 철학 주제를 기본으로 하여 신경과학, 과학철학, 생물학, 물리학, 언어철학, 행동경제학, 환경학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교수진을 보고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말 그대로 ‘융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계를 허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문가와 만능인이

모두 중요해진 복잡화된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일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에만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을 바탕으로 그 외연을 확장시켜나가며 생겨나고 만나는 모든 종류의 새로운 것, 그것이 바로 창조이자 융합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라는 방법론과 사고방식이 중요해진다. 딱딱한 경계를 허무는 유연하고 말랑한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다양성의 중요성, 같이의 가치를 보여준 뉴욕 대학교에서의 경험은 탐방을 진행하고, 또 철학이라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큰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었다.

(3)전문가 인터뷰 : 랙포드대학교 철학과 Stephen Hicks 교수님

◆ 인터뷰 대상자 소개



루소의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에 대한 전문가이신 Stephen Hicks 교수님은 현재 랙포드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계신다. 탐방을 준비하는 동안 루소의 포스트모더니스트적 면모에 대한 관련 자료를 조사하며 그 분야에서 저명하신 Hicks 교수님의 논문을 읽게 되었고, “학문 창조의 실현을 향하여”라는 이름으로 한국철학자인 최계우와 서양철학자인 루소를 비교철학적으로 분석하는 저희 탐방주제를 설명하며 인터뷰를 부탁드린 결과 새롭고 흥미로운 비교문화적(cross-cultural) 주제라며 저희의 주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여 주셨다. 사실 탐방을 준비하면서 가장 뿌듯하고 학생으로서 감동받은 순간이기도 하다. 서로에 대해 글자로만 알고, 글자로만 소통할 수 있었던 교수와 학생들이 동일한 관심사가 묶어준 인연을 바탕으로 한 자리에서 만나는 순간이 탐방 내내 기다려졌다.

Hicks 교수님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대표적인 논문은 루소에서 푸코에 이르는 철학의 흐름 속에서, 회의주의와 사회주의의 변화양상에 따라 포스트모더니즘의 역사와 발전을 설명하는 “Explaining Postmodernism: Skepticism and Socialism from Rousseau to Foucault”라는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논문 표지의 하단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철학자들이 보여줬던 포스트 모더니즘적 면모를 시대적 흐름에 따라 분석한다. 여기서 Hicks 교수님이 설계한 가설과 주장은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인식론을 중심으로 형성된 합리주의자들의 오류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경험주의적 학문의 시작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사회주의의 실패가 포스트모더니즘의 필요성을 일깨운 것이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 가설은 학문체계 안에서, 두 번째 가설은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통찰 안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분석하는 것이다. 상당히 독자적이면서도 명확하게 포스트모더니즘을 분석한 틀이 매우 인상 깊었다.

◆ 인터뷰 질의응답

Q1. 포스트모더니즘이 정치적으로 극좌에 있는 철학자들이 회의주의와 과학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간극 속에서 나왔다는 교수님의 논문 정말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보다 자세히 직접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A1. 루소로부터 시작하여, 푸코, 데리다 같은 젊고 똑똑한 철학자들은 당시의 시대상, 즉 마르크스의 극단적인 사회주의가 이상으로 통하는 시대상 속에서 자연스레 사회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정신과 가치를 가장 중시하려는 사회주의는 이성주의, 자본주의, 더 나아가 민주주의와 만났을 때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인간을 가장 중요시하려던 사회주의가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인간을 가장 핍박하고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을 목격하며 젊고 똑똑한 철학자들은 그에 대한 회의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고 진리에 다다를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사회주의는 과학주의, 자본주의에게 필연적으로 질 수밖에 없었죠.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것이니까요. 이러한 가치적 갈등 속에서 새로 태어난 탈-근대적, 포스트-모더니즘적 정신의 기초는 과학으로는 인간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인간의 감성과 정신적 가치를 완벽하게 수치화하고 계량화하여 이해할 수 있겠냐는 인간 이성에 대한 회의로부터 시작합니다. 과학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것, 모두가 진리고 진실이라고 믿는 과학적 사실, 사실은 경험적 사실에 반기를 드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적 정신인 것입니다.



Q2. 교수님은 논문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설명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회 현상적으로는 아직 포스트모더니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근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A2. 포스트모더니즘은 실체적 개념보다는 학문의 어떤 흐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아직 근대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현재 우리 세상은 포스트모더니즘보다 모더니즘에 더 가깝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철학을 비롯해 예술, 건축과 같은 분야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는 여러 사상들이 혼재하며 공존합니다.. 앞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은 학문과 시민의 일상에도 점차 그 영역을 확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3. 한국의 최제우가 만든 동학 이후로 한국에서는 자생적이고 독창적인 학문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최제우의 철학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재창조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반면 루소의 철학은 교수님을 비롯한 다양한 학자들로 재창조되고 있으며, 서양에서의 학문생산은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유가 있다면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3. 제가 현재 연구 생활을 하고 있는 나라인 미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도 학문의 융합과 재창조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국가가 맞습니다. 반면에 가족주의 전통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의견대립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가족주의가 강한 나라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의견 대립이 있을 경우에 자식은 자기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고, 적당히 부모와 타협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관습이 확고한 나라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내륙이 그렇죠. 한국도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에서도 영국과, 미국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의견대립이 있다면, 자식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굽히면서까지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 자식은 부모에게서 독립하죠. 가족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가진 생각이 관습적이고 보편적인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것을 비난하지 않고, 그가 자기 의견을 주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문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재창조되는 핵심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주제의식을 들었을 때, 유럽 내륙과 영국 사이의 차이점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주변 나라와의 비교가 필요하고, 여러분은 그것을 원하고 있죠.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 철학의 사회적 영향

(1) 학생 인터뷰

◆ 인터뷰 대상자 소개

컬럼비아 대학과 뉴욕 대학에서 2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철학, 사학, 컴퓨터공학, 언론, 신경과학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아래의 기본 설문 항목을 토대로, 학생들의 대답에 따라 더 깊은 질문을 하며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다.

◆ 인터뷰 질의응답

가장 궁금했던 것은 미국인들이 루소가 미국 독립에 끼친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가였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독립혁명에는 로크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여겨진다. 시대적으로 루소의 철학이 무르익고 루소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 미국이 독립하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루소가 미국 독립혁명에 영향을 끼쳤다고 짐작할 수 있고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미국인들의 생각이 듣고 싶었던 것이다.

설문 항목	예	아니오
1. 당신은 장 자크 루소에 대해 아십니까?	100%	0%
2. 당신은 장 자크 루소의 저서를 읽어보셨습니까?	90.5%	9.5%
3. 장 자크 루소가 유럽인의 사고와 정신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0%	0%
4. 장 자크 루소가 미국인의 사고와 정신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5.2%	4.8%
4-1. 장 자크 루소가 미국 독립혁명과 독립선언문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95.2%	4.8%

대상: 21명

학생들은 루소가 유럽 사회에 끼친 영향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서구 사회의 근본 양식을 형성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답변은 루소와 미국 독립선언문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 독립선언문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체크리스트'라고 답한 것이었다. 루소가 서구의 사고방식의 '틀'을 설립하였다는 것을 가장 선명한 비유로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놀라운 점은 설문에 응답한 학생 중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읽지 않은 학생은 단 두 명뿐이었다는 것이다. 문과와 이과의 비율이 약 5:5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공과 관계 없이 많은 학생들이 근대적 인간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문학 저서를 읽고 그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참 본받을 만하였다.

■ 미국 탐방의 의의

유럽을 탐방하며 유럽인들의 사고방식에 루소가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을 깊이 느끼고 온 후, 과연 유럽을 넘어서 미국에서는 루소가 어떤 존재인지가 매우 궁금했다. 워낙 자부심이 강하고 독립적인 나라이기에 과연 그들이 프랑스 학계를 대표하는 학자를 어떻게 바라볼지, 그들의 독립선언문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할지 의문이 들었던 것이다. 전문가와 학생 인터뷰를 통해, 단순히 나라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마치 현재 미국이 'melting pot'이라 불리듯, 신생 독립국으로서 당시의 여러 사상을 받아들이며 본인들만의 것으로 새롭게 창조해냈다는 자부심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럽인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인들은 루소가 서구 사고방식의 틀을 확립해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살고 있고, 그 체제의 시작을 루소가 만들어주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의 사고 틀을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일까,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모두가 동의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었다. 현재 가장 고민이 되는, 우리만의 한국철학의 뿌리를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욱 강하게 들었다.

또한 Stephen Hicks 교수님과 인터뷰가 도움이 많이 되었다. 감명 깊게 읽었던 논문에 대해 저자에게서 직접 설명을 듣는 경험은 정말 유익했다. 해외탐방단으로서, 예비 철학자로서 우리가 원했던 우리의 모습은 나름의 문제의식을 나름의 방법론으로 해결하려는 그 '문제해결적', '방법론적' 태도였다. Stephen Hicks 교수님은 선배 철학자로서 우리에게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하고 훌륭한 예시였다.

3. 결론 : 창조력은 ‘자기’를 찾는 데서 나온다

지금까지 “최초로 나르샤” 팀의 6주간의 해외학술탐방기를 돌아보며 탐방을 시작할 때의 목적의식을 상기시켜 보고, 탐방의 내용과 의의를 정리하며 부족한 점은 반성해 보았다. 해외탐방에 최종 선정된 후 바로 기말고사를 치러야 했고, 6월 마지막 주가 루소의 탄생 주간이므로 6월 셋째 주에 기말고사가 끝난 후 일주일 만에 출국을 해야 했기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다. 그래서 비행기 표와 숙박만을 간신히 예약하고 출국하게 되었고 국가 내에서 혹은 국가 간 이동할 때의 교통편은 예약을 하거나 자세히 알아보고 올 수 없었다. 그 결과 처음 도착한 스위스에서 약 2주차까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기존의 계획을 수정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을 써야 했다. 또한 프랑스에서 열린 유로 2016으로 인해 프랑스에 테러 위험이 어느 때보다 컸기에 프랑스 일정을 늦추고 스위스에서 예정보다 조금 길게 머물러야 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탐방의 시작지인 스위스에서 앞으로의 탐방을 예상하고 적용하는 데 긴 시간을 보냈다. 미국에서 역시 워낙 넓은 대륙이기에 이동 시간과 거리의 문제로 계획했던 모든 곳에 가지 못했다. 학회와 인터뷰 약속을 잡았지만 현지에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종종 발생했지만 못하는 것, 어쩔 수 없는 것에 연연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계획했던 대부분을 수행하며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은 듯하다. 나가서 루소의 발자국을 따라 걷고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는 순간마다 해외탐방이라는 소중한 기회에 감사함을 느꼈다.

우리의 3주까지의 탐방은 루소의 모국인 스위스에서 이뤄졌다. 탐방의 방법은 크게 2가지 부분으로 나누었다. 먼저 루소 철학의 생산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점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가 각 도시의 학문적 중심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루소의 기록 유산을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각 도시의 역사와 루소가 살았던 당시의 시대생활상에 대해서도 전시를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루소철학의 폭넓은 이해를 도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단지 ‘철학이 이론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루소의 철학을 실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루소와 문학의 집”을 탐방했다. 루소와 문학의 집에서는 학문적 재생산이 다각도에서 행해

지고 있다. 문학 및 건축에까지 이르는 여러 학문의 융합을 통해 루소 철학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루소가 모든 인간이 주체적인 선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교육’이 일반시민을 포함하여, 루소와 문학의 집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있었다.

4주차에는 루소가 가장 왕성히 활동했던 곳인 프랑스에서 탐방을 진행하였다. 루소가 프랑스에서 철학을 시작할 당시 볼테르, 디드로 등 계몽주의자들이 가꿔 놓은 자유로운 풍토의 학계는 젊은 철학자 루소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 결과 루소는 계몽주의의 완성자이자 계몽주의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반-계몽주의자로 그만의 철학을 생산해낸 것이다. 그의 철학은 후배 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었다. 기존 학자와 젊은 학자간의 연계를 통해 세대간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모든 프랑스인들은 루소를 시민혁명의 아버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그의 사회주의, 평등주의적 면모는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프랑스 내에서조차 현재는 많은 평가가 엇갈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근대의 루소가 현대 사회에까지 미치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5~6주차의 탐방은 현대 세계 학문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이루어졌다. 루소가 유럽 사회에 미친 영향력은 익히 알고 있지만, 현재 미국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것이다. 이는 곧 미국 독립선언서에 루소가 영향을 주었는가라는 질문의 다른 형식이기도 하다. 전문가와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결과 그들은 신생 독립국으로서의 미국의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에 끼친 루소 철학의 영향력을 깊이 인정하고 있었다.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인들은 루소가 서구 민주주의적 사고의 틀을 확립했다고 주저 없이 말했다. 이로써 서구 사회, 서구 사고방식에서 루소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 과정에서도 루소는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학생으로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이름 그 자체가 하나의 주제로서 작동하고 있었다.

우리가 탐방을 통해 찾고자 하는 것은 가치 창조의 힘, ‘창조력’이다. 탐방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자부심’이었다. 그들에게는 루소를 가졌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며, 루소와 자신이 동등한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것은 비단 루소에 의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느껴졌다. 그들에게는 뚜렷한 ‘자기’가 있었다. 뚜렷한 자신이 있기에 자신을 사랑하고, 믿고, 외부에 옳지 못한 것들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혹은 그보다 이전에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것이 창조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눅 들어 있다. 틀릴까봐, 남들과 다를까봐 자신의 목소리를 쉽게 내지 못한다. 우리의 시선은 늘 밖을 향해 있다. 밖에서 좋은 것을 들여오고, 밖에서 좋은 것을 배우려 한다. 늘 밖이 기준이 된다. 하지만 ‘안’이 없이는 ‘밖’이 존재할 수 없다. 우리 안의 것들을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부족한지 판단한 이후에야 밖을 쳐다볼 정당성이 생긴다. 그때에야 비로소 ‘비교’를 할 수 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다. 밖에서 기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

스로 기준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신을 찾는 데에서 창조 의 힘이 나온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철학이라는 단단한 뿌리를 가지고, 해외의 철학자와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한국에서 학문과 가치와 기준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은 분명 자신의 뿌리를 명확히 아는 데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한국 철학을 가졌다는, 한국만의 가치를 가졌다는 자부심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만 학계에서도, 사업 세계에서도, 어디에서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밖에서 들어온 방법론으로는 우리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우리는 한국철학의 뿌리를 단단히 다져 많은 이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철학자로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우리의 방법론으로 해결하는 길을 찾기 위해 학문창조의 실현을 향하여 비교철학 작업에 치열하게 몰두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된 경험이었다.

4. 탐방소감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4학년 함은혜

이번 포니정 해외학술탐방을 기획하게 된 핵심적인 계기는 철학을 공부하면서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에 있다.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학문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국이 학문창조의 주체가 되어 자국의 문화와 사회환경에 적합한 학문을 생산할 수 있을지의 문제로 배움을 이어가기 위해 넘어야 할 나의 중간 목표였다.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학문창조를 실현하는 것’을 탐방의 목표로 정했다. 그러나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론을 설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우선 현재 세계적으로 학문 생산이 활발한 국가의 사회환경과 학문 생산을 위한 인프라를 모델화하는 것을 큰 틀로 설정하고, 비교철학의 방법론을 도입해 한국 철학자와 해외 철학자를 분석하기로 했다. 한국 철학자는 당시 대학에서 서로 수강하고 있는 전공과목들에 대해 했던 이야기를 통해 정해졌는데, 바로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였다. 최제우가 창시한 동학은 한국 최초의 자생적 학문이지만 그 탄생 이후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크게 발전하지 못했으므로 이를 다시 다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다음의 단계에서 가장 많은 논의를 했다. 바로 비교 대상인 특정 해외 철학자를 정하는 문제였다. 수차례 논의를 거쳤으나 별다른 방안이 나지 않았다. 여기서 해외 철학자는 한국 철학자인 최제우와 학문적 연결고리가 필요하며, 그의 철학이 한국사회에서도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조건화했다. 최제우는 평등과 인간 존엄성이라는 근대적 가치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크게 기여했다. 그에 따라 우리 팀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 존엄성이라는 근대적 가치를 도입한 수많은 타국의 학자들을 비교하면서 탐구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논했다. 이 과정에서 서양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온 3대 시민혁명을 공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고, 그러한 혁명들이 촉발되는 데 기여한 계몽주의자들로 후보를 좁혔다. 결국, 시민혁명의 가장 큰 가치 중 하나인 ‘평등’을 제시하고, 근대적 민권개념을 확립한 루소를 최종 철학자로 선정했다. 이후 탐방 국가는 구체적으로 학문 창조가 가능했던 배경과 현재까지 후대 사람들이 그 지식을 재생산할 수 있는 근거를 알고자 했기에, 루소가 자신의 철학을 처음 창조한 곳과 루소의 철학을 후대 학자들이 재생산하고 있는 곳으로 나누어, 그러한 활동이 활

발한 스위스, 프랑스, 그리고 미국 이 3개국으로 정했다.

탐방을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느낀 바는, 확실히 세 나라가 한국보다 기초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데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캠퍼스의 학생들에게 루소에 관해 물으면 상당히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의 답변을 종합하자면 다음과 같다. 루소가 마련한 ‘근대성’의 이론적인 배경이 새로운 시대 변화를 도입하는데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그 방향을 향해 시민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함에서도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루소의 철학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데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탐방 국가의 시민들을 보면서 이 나라들에는 학문에 대한 물리적인 지원 이전에, 보다 근본적으로 학문 생산을 지원하는 비물리적인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한 경험들은 단순히 국외대학의 학문지원체계를 보고 오는 것을 뛰어넘어, 근대를 만들고 현재를 움직이는 ‘자유로운 토론’과 ‘사상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회환경을 체감하게 하였으며, 이 탐방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이 탐방은 철학도로서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에 대한 답을 하자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학문을 수입하는 국가가 아니라 생산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앞서 언급한 학문의 생산을 지원하는 비물리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다음은 대학에 변화가 필요하다. 대학은 그 어떤 집단보다도 변화를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보편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그 변화가 옳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렇기에 현재 대학은 내외부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어떤 방향과 방법으로 다가올 한국사회에 적합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함께 수많은 스승과 제자들이 활발하게 토론해야 한다. ‘자유로운 토론’이야말로 신이 아니라 인간인 우리가 진리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최초로 나르샤’라는 팀명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 학문창조를 실현하기 위해, 과거 타국의 학자가 자신의 철학을 처음 창조했던 곳과 현재 후대가 그 철학을 재생산하고 있는 곳으로 탐방을 다녀왔다. 이번 탐방은 철학도로서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탐구하고, 새로운 관점과 연구주제들로 배움을 도약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늘 응원하고 지원해주신 포니정 재단과 재단 가족들부터, 먼 나라에서 자국의 철학자를 공부하기 위해 온 학생들을 따스하게 대해주던 사람들까지 탐방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마주친 모든 이들이 떠오른다. 그들의 모습 하나하나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는다. 함께 한 팀원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며, 마지막으로 내년에도 포니정 장학생이 되어 2017 포니정 해외학술탐방에 다녀올 또 다른 이들을 응원하면서 소감을 마무리한다.

서강대학교 철학과 3학년 성민교

작년 2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안 있어, 즉 1년 전 이맘때쯤 학교에서 포니정 재단의 장학 프로그램에 지원해 보라는 추천을 받았다. 당시 포니정 재단이라는 이름을 처음 검색해 보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건축, 토목공학, 철학, 사학과 학생만을 선발해 장학 지원한다는 점이였다. 기업에서 인문학 분야를 꼭 짚어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렇

다면 이 학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 학문들은 모두 ‘기반’을 만드는 학문이다. 건축학과 토목공학은 우리가 실제로 삶을 영위하는 공간의 기반을 만들어주며, 철학과 사학이라는 인문학은 인간 정신의 가장 근본으로 들어가 정신적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1학년 때 처음으로 ‘한국철학사’라는 수업을 들었다. 수업 첫 날,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질문하셨다. “한국철학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한국철학이라는 단어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혹은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나는 ‘한국철학사’라는 강의명을 보고 수강신청을 했지만 사실 그 뜻조차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던 것이다. 그것은 사실 한국철학이라는 분야의 존재성 자체가 매우 연약하기 때문이다. 한국철학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었을 때 쉽게 귀 안으로 들어온다. 익숙한 단어인 한국과 철학의 조합일 뿐이다. 하지만 조금만 단어의 뜻을 곱씹어보면, 곧바로 “한국철학이 뭐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이 의문이 드는 순간 나는 내 평생의 할 일이 한국철학을 정의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인으로서, 한국인 철학도로서 한국철학을 모른다거나 혹은 저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철학의 존재성을 명확히 하는 것은 곧 한국의 정신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 없이 서양의 사상만을, 중국의 사상만을 이해하려 했다. 우리만의 정신적 뿌리를 확립하지 못한 채 외부의 것들만 바라보다 보니 그 외부의 것들이 곧 우월한 것이 되고 정답이 된 것이다. 이는 아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정신과 사상은 언어, 문화, 사회 제도, 기술 등 그 땅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토양에서 피어나는 것인데, 맞지 않는 땅에서 억지로 농사를 지어야 하니 말이다. 이때부터 나는 우리만의 독특한 정신적 토양은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나름의 고민과 노력을 하며 공부해 왔다.

포니정 재단을 검색하며 다음으로 흥미로웠던 것은 해외탐방 프로그램이었다. 철학이라는 주제로 해외에서 나의 지적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니, 생각만 해도 짜릿했다. 철학과 학생 두 명이 만나 팀을 꾸린 이후 어떤 철학적 주제를 잡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주제를 정하는 데에만 두 달 가까이 걸렸을 정도로 말이다. 무언가 구체화가 안 돼서 마음이 안 좋았던 중에, 내가 저번 학기 폭 빠져 있던 한국철학특강 수업에서 배우는 동학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히 하게 됐는데 팀원이 바로 이걸 주제로 삼으면 어떻겠냐고 제안해주었다. 나는 가장 한국적인 것을 바로 옆에 두고도 못 보고 있던 것이다. 그때부터 매 수업시간이 곧 탐방 준비 과정이 되었다. 수업에서 다루는 동학 관련 책들과 논문들을 읽으며 아이디어를 발견했고 쟁점들을 발견했다. 최제우에 대한 텍스트를 읽으며 루소와의 미묘한 공통점을 발견했을 때, 눈이 번쩍 뜨이는 기분이 들었다. 사실 동학의 최제우와 서구 계몽주의자 루소를 비교하며, 또 비교 항목을 뽑으며 내 미흡한 수준으로 동학을 이렇게 분석해도 되는 것인지 고민이 되었다. 교수님께 이런 고민을 말씀드리자, “네가 아는 것이 우리가 현재 동학에 대해 알 수 있는 전부야. 네가 동학을 어떻게 분석하든 지금 학계에서 새로운 것이 되고 너만의 것이 돼.”라고 말씀해 주셨다. 동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동시에 더 새로운 이론들과 학설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금광과 같은 것이 바로 동학 연구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더욱 사명감이 들었고, 또 해외 학자들에게 한국의 철학을 소개하는 것이기에 더욱 책임감이 크게 느껴졌다.

다행히도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 시민들까지 우리의 주제의식을 높게 평가해 주었고, 늘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다. 처음 Stephen Hicks 교수님께 메일을 드릴 때만 해도 워낙 저명한 분이려 바쁘실 테니 인터뷰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쉽게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메일을 보낸 바로 다음 날 답장이 오고, 흔쾌히 인터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독창적인 주제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학생으로서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다. 몇 달 간의 연락 끝에 실제로 만난 날, 서로에 대해 글자로만 알고 글자로만 소통할 수 있었던 교수와 학생들이 동일한 관심사가 묶어준 인연을 바탕으로 한 자리에서 만나는 순간은 정말 뿌듯하고 기뻐다. 거리에서 만나는 시민들에게 나는 한국에서 온 철학과 학생이고 이리이러한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왔다고 말해주면 모두 큰 관심을 보였고 매우 잘 이해하였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갖는 기본적인 애정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곳에서 아름다움을 많이 느꼈다.

나와 다른 타자를 타자 그 자체로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으면서 말이다. 자부심, 그리고 나와 다른 존재의 인정은 결국 내 뿌리를, 내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것에서 시작한다. 나의 기원을 명확히 이해해야 이 땅에 꽃꽂이 뿌리를 내리고 서 있을 수 있다. 내가 똑바로 서면 그때서야 자연스럽게 나의 밖으로 시선이 넘어간다. 내 안을 보지 못하고 바깥만 바라보고 닦으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옷에 나를 맞추려 억지로 몸을 바꾸는 것과 같다.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나를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시선이 향하게 되고, 나를 벗어나는 것도 가능해진다. 창조란 곧 '나'로부터의 '벗어남'이다. 어떤 명확히 고정된 하나에서 벗어나서 나와 다른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인 것이다. 이는 일단 나의 뿌리를 이해하여 나의 존재를 공고히 하는 데서 시작한다. 나를 알아야, 나에게서 벗어날 수도 있다. 우리는 아직 '나'를 모르고 있다.

탐방을 준비하던 기간, 탐방을 실제 하고 있던 기간, 그리고 지금 탐방을 마친 후까지 모든 시간이 나를 더 깊고 넓게 만들어 주었다. 이 과정은 내 평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남을 것이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선물해 주시며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포니정 재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학자로서, 또 선배로서, 정신적으로 많은 힘을 주신 최진석 교수님과 조성환 교수님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기나긴 탐방을 무사히 끝내도록 도와준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같이 한 팀원께도 감사하고 고생하셨다고 말하고 싶다.

